

2. 輕水爐 會談의 決裂과 展望

- (焦點) 지난 4월 20일 北美間 경수로 전문가회담이 결렬되었음
- (爭點) 회담의 爭點은 경수로 '爐型'이었으며, 회담이 진행되면서 남한-미국과 북한 兩側의 입장이 점차 접근되어 갔으나 合意에는 실패함
- (懸案) 회담 결렬 직후 미국은 高位級會談을 재의, 이를 통한 政治的 妥協이 기대됨
- (展望) 고위급회담의 結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나,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韓國型은 明記하지 않고 事實상의 한국형을 韓·美·(H) 컨소시엄을 主계약자로 하여 제공하는 妥協案임

○ 會談의 決裂

- 지난 한달 동안 베를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北美間 경수로 전문가회담이 協정체결 日標 日字인 4월 21일을 하루 앞둔 20일 公式的으로 決裂되었음.
- 이같은 결렬은 회담 개시 前부터 예상되어 오던 것이기는 하나, 이로써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合意 이행은 그 첫번째 危機를 맞게 되었으며, 북한의 핵연료 재장전 위협으로 한반도에 다시 약간의 긴장감이 돌아옴

○ 會談의 進行 過程과 美國 및 南北韓 立場의 變化

- 이번 전문가회담에서의 가장 큰 爭點은 경수로 爐型에 관한 것으로서, 會談 初期 남한-미국과 북한 兩側은 이에 대해 첨예한 對立을 보였음
 - 남한은 회담 前부터 시종일관 韓國型(울진 3,4호기)의 채택과 경수로 공급에 서의 한국의 '中心的 役割'을 주장해 왔으며, 미국도 이에 동조하였음
 - 반면 北韓은 회담 전부터 한국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온 데다가 회담 초기 러시아형을 주장하는 등 '한국형 수용 不可' 입장을 견지하며, 時限內 協정이 체결 안되면 핵연료를 재장전하겠다는 威脅도 서슴지 않았음
- 會談이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中반으로 접어들자 爐型 문제에 대한 韓美間 異見이 드러나게 되고, 북한은 이를 政治的으로 이용하려 함
 - 미국은 갈루치 등을 통해 남한의 強硬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한편, 언론을 통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(CE)과 웨스팅하우스 같은 미국회사의 主導的 역할을 주장하며 自國 利益을 챙기고자 하는 본심을 드러냄
 - 이에 남한 측의 강한 反撥이 뒤따르게 되고 북한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, 한때 韓美共助體制가 위기를 맞게 됨

- 회담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양측의 입장이 조금씩 누그러들어, 한때 妥協의 可能性이 점쳐지기도 했으나, 결국은 타협에 실패하고 말았음
-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을 再調整, 韓國型 明記를 포기하고 主계약자는 韓國企業(韓電)이 말되 이 사업의 監理·監督을 맞게 될 美國企業의 '프로젝트 코디네이터'로서의 역할을 強化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를 본듯함
- 북한도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社의 모델(SYSTEM-80)을 기본으로 미국과 계약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임
- 하지만 主계약자 選定 문제를 둘러싸고 兪見을 좁히지 못해,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음

< 제네바 핵합의 이행 일지 >

日 字	內 容
1994. 10. 21	北美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서명
11. 19	1차 폐연료봉 전문가회의 (평양)
11. 30	1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(북경)
12. 6	1차 연락사무소 전문가회의 (워싱턴)
1995. 1. 14	美國, 북한에 중유 5만 톤 제공
1. 18	2차 폐연료봉 전문가회의 (평양)
1. 20	美國, 對北제재 완화조치 발표
1. 31	2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(베를린)
3. 9	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 발족
3. 25	3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(베를린)
4. 10	北美間 직통전화 개통
4. 12	4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(베를린)
4. 19	5차 경수로 전문가회의 (베를린)

○ 北美高位級會談에서 政治的 解決 期待

- 회담은 결렬되었으나 양측간의 對話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
- 북한은 회담 결렬時 위협했던 핵연료 저장전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어, 對話의 意思를 간접적으로 시사함
- 미국은 회담 결렬 직후 공로명 외무장관과의 協議을 거친 후 북한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하였음
- 북한은 24일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혀 옴으로써, 조만간 뉴욕 實務接觸을 통해 議題 範圍를 정한 후 5월 초 제네바에서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전망이다
- 결국 경수로 문제는 갈루치-강석주 간의 高位級會談에서 政治的 協商을 통해 妥結될 可能性이 높음

- 북한과 미국 兩側 모두 내심으로는 고위급회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지금까지의 회담은 이를 위한 探索戰의 성격이 강하였음
- 일부에서는 제네바 합의의 '이행'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또 다른 정치적 協商은 북한에게 평화협정 문제 제기의 기회를 줄 뿐 우리에게 아무런 得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, 제네바 합의문이 경수로 爐型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爐型의 決定은 '專門家會談의 技術的 解決'이 아니라 '高位級會談의 政治的 解決'을 요하고 있음

○ 會談 結果 시나리오와 그 可能性 및 南北關係에 대한 影響

· 고위급회담의 결과로는 다음의 7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함

번호	시나리오 內容	可能性	南北關係 影響
①	한국형 明記 - 韓國 主계약	희박	불투명
②	한국형 不明記 (사실상 한국형) - 韓國 主계약 (美國 역할 보장)	大	改善
③	한국형 不明記 (사실상 한국형) - 韓·美·(日) 컨소시엄 主계약	最大	改善
④	非한국형 - 美·(日) 主계약 - 韓國 部分 參與	大	制限 改善
⑤	非한국형 - 美·(日) 主계약 - 韓國 排除	희박	惡化
⑥	회담 不發/決裂 - 北 핵활동 再開(제네바합의 파기) - 對北 制裁	小	緊張 高潮
⑦	회담 不發/決裂 - 北 핵동결 維持 - 협상 長期化	中	現狀 維持

-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③이며, 그 다음 ②, ④, ⑦의 순서대로 가능성이 크며, ①, ⑤, ⑥ 등은 가능성이 희박함
- 전문가회담 막바지에서 남한·미국과 북한 양측은 각기 '韓國型 明記'와 '韓國參與 不可'의 입장을 이미 양보했다는 점에서, ①, ⑤의 가능성은 희박함
- 현재 남한·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각기 ②, ④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할 때 이의 妥協點이라 할 수 있는 ③의 채택 가능성이 가장 크며, 남한이 북한의 다른 조건들을 들어줌으로써 ②나 혹은 그의 변형된 형태가 선택될 가능성이 남한의 양보 가능성(즉 ④)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
- 회담이 不發하거나 決裂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으나,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네바 합의가 북한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利得(즉, 北美關係 改善을 통한 開放과 經濟回生)을 고려할 때 ⑥의 가능성은 희박하며, 오히려 ⑦의 가능성은 ①, ⑤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
- 가능성이 가장 높은 ③과 ②의 경우 南北關係의 改善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, ④의 경우에도 制限的인 관계 개선은 가능할 것이지만, ⑦의 경우 南北關係는 現狀을 維持할 것으로 보임

(김 욱)